

보 도 자 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 일자	2022. 4. 27. (수)/ 총 4매 (본문 2, 붙임 2)	
담당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연구부 박상우 부장, 이상규 전문연구원 • ☎ 051-797-4562, 4563 (leesangkyu1234@kmi.re.kr) 	
보도 일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KMI, ‘위기의 어촌, 부활을 위한 진단과 과제’ 정책간담회 개최

-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지역균형발전과 어촌 부활을 위한 방안 도출 -

『위기의 어촌, 부활을 위한 진단과 과제』 정책간담회가 4월 2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종덕)과 농수축산신문이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행사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앞서 CPTPP 가입,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 유류비 상승, 지역소멸 등 대내외 위기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어촌의 부활 등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국정과제 발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 토론에는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을 좌장으로 해양수산부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상우 어촌연구부장, 수협중앙회 김기성 지도부대표, 서울대 이성우 교수, 한국어촌어항공단 조성대 상임이사, 한국농어촌공사 송성일 농어촌개발이사,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성호 회장, 지역활성화센터 오형은 대표, 총 8명의 패널이 참여했다. 어촌 부활에 시급한 다양한 정책과제로는 청년 유입과 청년 관계인구의 증대, 소득안정,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덩어리 규제 해결, 스마트 어촌사회 전환 등이 논의되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은 “어촌의 문제는 장기적 소외가 누적된 결과이며 다가오는 국내외 도전과제에 큰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위기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해법을 찾고 선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된 정책적 관심, 위기상황에 맞는 재정적 지원,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어촌 위기를 국회차원에서 상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협력체계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1〉 ‘위기의 어촌, 부활을 위한 진단과 과제’ 정책간담회 사진

〈붙임2〉 ‘위기의 어촌, 부활을 위한 진단과 과제’ 정책간담회 포스터

<붙임1> '위기의 어촌, 부활을 위한 진단과 과제' 정책간담회 사진



〈붙임2〉 '위기의 어촌, 부활을 위한 진단과 과제' 정책간담회 포스터

